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화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밤에 찾아온 사람 I

(요 3:1-11)

이중윤 원로목사

본문에는 공관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 된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매우 귀중한 진리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서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영혼을 가진 사람, 소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 영혼이 상처 입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보훈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파산을 당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1.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

(1) 율법 행동주의자(완전주의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훈련이 매우 잘 된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에 살고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의식과 규례를 갖춘 종교인, 윤리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삶은 영망진장입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학자 출신입니다. 그는 율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킨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조상들의 전통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고, 니고데모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행동주의자입니다. 이 율법 행동주의자의 특징은 완전주의이며 결벽주의입니다. 그런데 무슨 동기에 서인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라는 말의 뜻은 '니케-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데모, 데모스'라는 말은 '백성'이므로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니고데모는 군림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ruler of the Jews'(유대인의 통치자)라는 말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산헤드린의 관원으로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3) 밤에 찾아온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은 아마도 그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구약성경도 히브리어로 읽지 않고 헬라말로 번역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매우 지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교육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질병에 빠지게 되어 상실감으로 가득 차고 영적인 소경인 채로 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데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이목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조금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적한 시간을 택해서 밤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아직도 밤의 사람이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존경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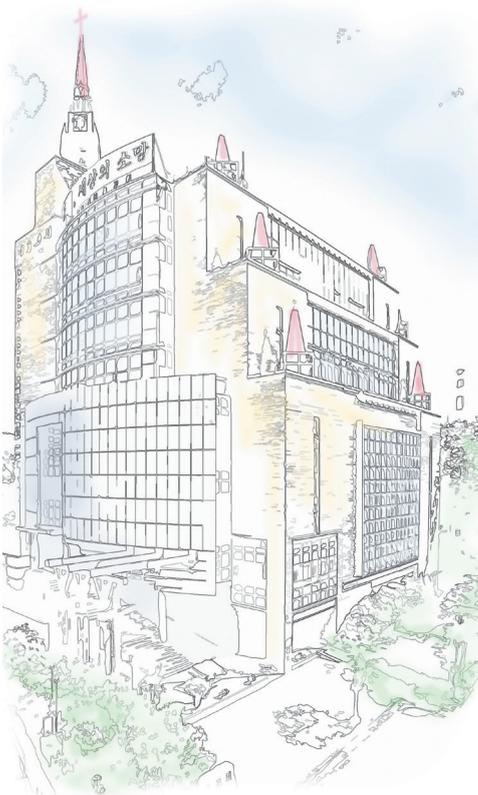
(4) 겸손한 자

니고데모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선생이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에서 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진리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5) 회의론자

니고데모는 진리 앞에 겸손히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회의론자는 진리를 일단 의심하지만 증거가 나타날 때는 그 앞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학문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신앙에 속한 것이요. 의심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학문하는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반면 부정직한 회의론자는 진리나 교리를 믿는 척은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믿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어찌 이런 일이 일 수 있느냐'고 하며 믿지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세상적인 것은 잘 알았지만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 계속)



서울강남노회, 당회 측 임시당회장 파송요청 사실상 거부

지교회의 당회장 부재 상태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

서바협을 중심으로 출교판결을 무시하고

박노철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노회를 상대로 권징 고소장 제출

당회서기 임상헌 장로를 비롯한 당회원들은 지난 2019.12.10(화) 총회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 출교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토대로 서울강남노회에 서초교회 강희창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는 2020.1.9(목)자로 박노철 목사가 총회재판국에 위 출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당회의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는 서울강남노회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명백히 유기한 것이고 상위 처리회 재판국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서울강남노회가 위 공문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의 선고 즉시 서울교회 당회장 직이 결원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잠시라도 비워 둘 수 없는 지교회의 당회장 부재상태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이고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면 곧바로 서울강남노회가 그동안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애써 부인하던 변호사 직무대행자까지 철회하여 노회와의 마찰을 해소해 주겠다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까지 외면한 채 그냥 두라는 것이나 다름없어 명백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서바협을 중심으로 몇몇 안수집사들은 출교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박노철 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며 상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노회를 상대로 지난 2020.1.14(화) 권징 고소장을 서울강남노회에 제출하였고 서울강남노회는 현재 기소위원회조차 없어 이 건도 지난 박노철 목사 권징 고소건처럼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총회재판국(재심), 박노철 목사 재심청구 기각결정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교단법적으로는 불복하기 어렵게 됨

한편 총회 재심재판국은 박노철 목사가 지난 2019.12.30(월) 청구한 위 정직, 출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2020.1.14(화) 재심을 받아 들일 만한 적법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교단법적으로는 불복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오는 2020. 1. 22(수) 최초 심문절차가 진행될 위 출교판결에 대한 판결효력정지가처분 건만 남았다.

위 가처분신청까지 기각되면 현재 판결 선고가 되지 않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 목사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동안 4년여 서울교회와 관련되어 계류 중인 여러 법적소송은 일거에 해결되어 교회 분쟁에 시달려온 수천 교인들은 정상적인 신앙활동이 가능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성도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결 정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전 재심 제104-05호

사 건 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김시환 집사 외 36인이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항고건"(사전번호 : 제102-37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재심청구인 박노철 성별 : 남 직분 : 목사(서울교회) (피고소인)

재심청구인의 변호인 : 임무환 성별 : 남 직분 : 목사 (피고소인)

피재심청구인 1. 김시환 성별 : 남 직분 : 집사 (고소인)

결정고지일 : 2020년 1월 14일

주 문

1. 원심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제102-37호)에 대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원심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제102-37호)
주문 : 1. 피고인 박노철에 대하여 정직 6개월과 출교를 선고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서

본 서울교회 당회의 과반수 당회원은 아래와 같이 헌법 정지 제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의거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합니다.

청원 대상 임시당회장 : 강희창 목사(서초교회 사무)
청원 사유 : 별지와 같음

2019년 12월 16일

서울교회 장로 임상헌
외 13명 일동
(아래 명단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장 귀하

장로 임상헌	장로 하인선	장로 오광원
장로 최광성	장로 이재홍	장로 오지열
장로 송인권	장로 안인호	장로 최형일
장로 차도훈	장로 홍일성	목사 서병철
목사 장식남	목사 조원영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000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55, 601호 (역삼동 선릉빌딩)
☎021569-2077 FAX:021569-2078 Homepage:sknp.or.kr E-mail:sknp@chol.com

서 강 남 : 제 65-233호
시행일자 : 2020. 1. 9.
수 신 :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 및 13인
계 목 :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에 대한 답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답드립니다.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 및 13인의 연명으로 청원한 임시당회장 파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지난 2019년 12월 10일 박노철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권징재판에서 정직 6개월과 출교판결이 선고되어 서울교회가 당회장 결원상태가 되었으나 상기 판결과 관련하여 현재 박노철 목사가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지난 12월 30일자로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고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상기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 본 노회의 입장에서는 총회재판국에서 재심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에 차후 재심여부와 가처분 판결 여부에 따라 교회가 일어나게 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노회는 상기 재심청구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확인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서울교회의 정상화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 회 장 오 경 환
서 기 김 명 윤

고 소 장

고소인 1. 김시환 직분: 안수집사
2. 송인수 직분: 안수집사
3. 차영도 직분: 안수집사
4. 예안식 직분: 안수집사

피고소인 1. 이태종 직분: 목사
2. 향명환 직분: 목사
3. 오경환 직분: 목사

죄과명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제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제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 제12항 교회 내의에서의 업무발해 행위

2020 일꾼들에게 듣는다

교회 회복의 동력이 되는 청년부



하상영 집사
(2020청년2부 회장)

10년을 넘기지 않을거라 생각했던 서울교회 청년부 생활이 어느덧 20년 차가 가까이 옴을 느끼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20대 시절 경험했던 회장이라는 직분을 다시 한번 맡게 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견고할 것만 같았던 서울교회가 분열의 시기를 겪으며 버티고 버티다 하나 둘씩 사라져 버리는 청년부원들을 보며 원망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청년부원들의 마음에 작

은 소망들이 자라 나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눈물로 지켰고 열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갈 청년부에 대한 기대를 조심스레 해 봅니다.

서울교회의 나이와 청년부원들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듯 서울교회와 함께 해 온 저희 청년부가 서울교회 회복의 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 지도자이신 목사님, 전도사님과 신앙의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잘 흡수하여 서울교회 다음 세대의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다. 저희 청년부는 주일 3부 예배 후 모여서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어울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청년부 모임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걸음이 낯설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중심·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자세



오원중 성도
(2020청년1부 회장)

안녕하세요. 2020년 청년1부 회장을 맡게 된 오원중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리더를 맡는다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리더로 선출이 될 당시에 저는 스스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저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제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역은 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그리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오직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 제가 개인적으로 올 한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슴에 품을 성경 말씀입니다.

서울교회 청년1부는 20살에서 27살의 청년들이 모여서 매주 집회를 드리고 말씀이 중심으로 된 신앙 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1부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또래부터 대학교와 사회 초년생의 시기에 있

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남은 인생 전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년1부 공동체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매주 깊이 있는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각박해지고 치열한 경쟁이 심해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에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서로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1부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예배와 감사하는 삶의 중·고등부



문영주
(2020고등부 회장)

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 고등부 회장이 된 문영주입니다. 일단 이런 과분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아주 어렸을 적부터 알고 다녔었지만 해외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실제 다닌 해로 치자면 이 순례자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 비해 짧은 시간을 서울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유년 시절 서울교회에서의 좋은 추억들과 현재 고등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들이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저도 포함하여)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해보면 지금까지 저는 이런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고등부 회장이라는 섬기는 자리가 주어졌으니 저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중·고등부가 기쁨의 예배와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수련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믿음의 중·고등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겨울 성경학교·수련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오형철·오광현 이주현·이주영 유은경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분환 (서울교회장로회)

1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월 19일 : 김은석(치과)
- 1월 26일 :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상담 시간: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한국장로교 총회 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편찬위원회를 1. 20(월) 소집한다. 백양회 모임을 1. 21(화)에 소집한다.

■ 금주의 식사: 송인수 집사 박한옥 집사 가정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교회제공
쇠고기 카레, 김치

부서	주제	일정	장소	지도교역자
영아부	예수님의 기도	2월 15일(토)	서울교회	김은숙 전도사
유아부	예수님의 기도	2월 15일(토)	서울교회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의 기도	2월 15일(토)	서울교회	김은숙 전도사
유년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월 21(금)-22(토)	아가페타운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월 21(금)-22(토)	아가페타운	박미라 전도사
중·고등부	너 하나님의 사람아	1월 31일(금)-2월 1일(토)	아가페타운	최승원 전도사
청년 1·2부	믿은 만큼 행하라	2월 14일(금)-15일(토)	아가페타운	최승원 전도사
사랑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2월 16일(주)	서울교회	서명철 목사

비전2020운동 후원자 1월 19일현재

스데반회(2) / 1교구 조순엽(1) / 3교구 김종철(1) 김형배(1) 장경원(1) / 6교구 김숙자(1) / 7교구 남영주(1) 이종균(5) / 8교구 유병옥(1) / 13교구 김희열·유슬기(2) / 14교구 이계홍(2) / 15교구 정준해(2) / 16교구 노제현(3) 채교전·정금희(2) 채승호(1)
(다음 주 계속)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1월 19일현재

남영주(1/2) 노제현(1) 스테반회(1) 신경미(1) 원유진(1/2) 윤성남(1/2) 이계홍(1/2) 정완진(1) 조순엽(1/2) 채교전(1/2) 채승호(1/2) 최지욱(1/2)
(다음 주 계속)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1월 19일현재

이종균(1) 김희열·유슬기(1) 이계홍·성순자(1/2) 채승호(1/2) 채교전·정금희(1) 최죽희·박연옥(1/2)
(다음 주 계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기 바란다. 연말정산 자료를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린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기록물 제출 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 받는다. 당회 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9년 한 해 동안 기록한 모든 기록물(예배 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 사진 등)을 작성했던 컴퓨터 파일을 2020년 1월 말까지 최영철 집사(멀티미디어부 팀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란다.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cyc@hanmail.net으로 올려주기 바란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 명과 기록물 명, 담당자명을 써주기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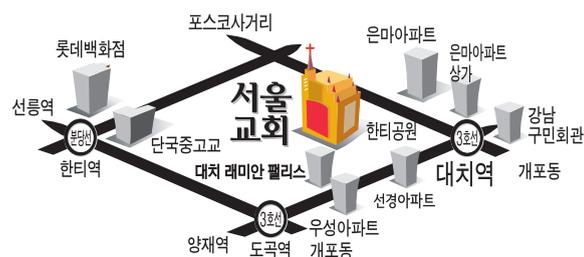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가정한선교사, 농어촌100교회, 비전2020운동 후원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1월 31일(금)-2월 1일(토) 중·고등부 수련회로부터 시작되는 2020 겨울성경학교·수련회를 통하여 교회학교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교회가 속히 회복되고 소생케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